

▶ 달러/원 주간 전망

• 연준 정책 신호와 달러 향방 촉각, 원화 추세 가늠자 될 듯

서울, 1월3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후반에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05-1,245원이다.

2월 연준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연준 정책 스탠스에 시선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물가 상승세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두며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를 앞서 반영해 온 만큼, 이 같은 시장 전망이 이번 2월 회의에서 충족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기며 시장의 설부른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준이 강한 매파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시장의 연준 발 정책 완화 기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번 연준 회의 결과가 향후 나오는 지표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스탠스로 요약될 경우 최근 속도 조절 양상을 보였던 글로벌 달러는 약세 탄력을 다시 높일 수 있고, 이에 달러/원 환율은 한 단계 레벨을 낮출 수도 있다. 최근 환율은 100주 이동평균선이 포진한 1,230원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레벨이 본격 하향 돌파된다면 환율은 큰 하락세를 이어갈 여지도 있다.

이외에도 금주는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통화정책 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또한, 중국 금융시장이 춘절 연휴를 끝내고 재개장하는 가운데 1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표 등을 통해 리오프닝 효과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긴축 완화와 중국 경제 회복을 기대하며 국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는 당분간 원화의 주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경제지표로는 1월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외환 수급의 핵심인 무역수지 개선 여부는 챙겨봐야 할 듯하다.

한편, 외환 당국은 1년 만에 외환시장 선도은행을 재선정해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월30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09:00)
-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12:00)
- ⊙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2023-3) (12:00)
- ⊙ 기획재정부: 2022년 국제 수입 실적(잠정) (10:00)
- ⊙ 통계청: 2022년 12월·2022년 국내 인구이동 (12:00)
- ⊙ 한국은행: 2023년 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1월31일(화)

- ⊙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10:30)
- ⊙ 한국은행: 2022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세미나 개최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14:00)
- ⊙ 한국은행: 2023년 1차(1.13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2월1일(수)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
- ⊙ 한국은행: 총재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 (08:50)
- ⊙ 금융위원회: 22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12:00)
- ⊙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제도 개편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 (12:00)
-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3. 1) (12:00)
- ⊙ 기획재정부: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추후공지)

2월2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07:30)
- ⊙ 통계청: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17:00)

2월3일(금)

- ⊙ 한국은행: 2023년 1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 (10:00)
- ⊙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0:30)
-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3.1 -논고: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월30일	19: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1월		95.8
1월31일	00:30	미국	달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1월		-18.80
1월31일	08:30	일본	실업률	12월		2.5%
1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12월		0.2%
1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12월		2.6%
1월31일	10:30	중국	NBS 제조업 PMI	1월		47.0
1월31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1-12월		-3.6%
1월31일	10:30	중국	NBS 서비스업 PMI	1월		41.6
1월3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1월		30.3
1월31일	14:00	일본	건축주문 YY	12월		-9.7%
1월31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12월		-1.4%
1월31일	19:00	유로존	GDP 잠정치 QQ	4분기	-0.1%	0.3%
1월31일	22:30	미국	고용비용	4분기	1.2%	1.2%
1월31일	23:00	미국	주택가격 MM	11월		0.0%
1월31일	23: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YY	11월		8.6%
1월31일	23:45	미국	시카고 PMI	1월		44.9
2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월		1,227.6B
2월1일	00: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월	109.4	108.3
2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치	1월		48.9
2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1월		49.0
2월1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1월	48.8	48.8
2월1일	19:00	유로존	CPI NSA	1월		120.53
2월1일	19:00	유로존	실업률	12월	6.5%	6.5%
2월1일	21: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1월27일 주간		255.3
2월1일	22:15	미국	ADP 전국고용동향	1월		235k
2월1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1월		46.8
2월2-9일	00:00	미국	자동차 판매	1월		2.780M

2월2일	00:00	미국	건설지출 MM	12월	0.1%	0.2%
2월2일	00: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1월	48.2	48.4
2월2일	21:30	미국	챌린저해고건수	1월		43.651k
2월2일	22: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23일 주간		186k
2월3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2월		5.6%
2월3일	00:00	미국	공장주문 MM	12월		-1.8%
2월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치	1월		52.4
2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월		48.0
2월3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1월	50.7	50.7
2월3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YY	12월		27.1%
2월3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1월	175k	223k
2월3일	22:30	미국	실업률	1월	3.6%	3.5%
2월3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1월		46.6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31일(화)

- 댈러스 연방은행, 1월 텍사스 서비스업 전망 서베이 발표 (1일 오전 1시30분)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1일까지)

2월1일(수)

-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2일 오전 4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2일 오전 4시30분)

2월2일(목)

- 영란은행, 금리 발표·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후 9시)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발표 (오후 10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기자회견 (오후 10시45분)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2023년 프랑스-독일 비즈니스 어워드 기조연설 (3일 오전 3시30분)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연준 금리 인상폭 25bp로 축소 전망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1월31일~2월1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널리 전망된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올릴지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이번 회의에서 매 파적 입장을 누그러뜨린다면 증시는 랠리를 보이고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금리 선물 시장은 연방기금금리가 6월에 5% 약간 아래에서 고점을 찍은 후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긴 연휴 마친 중국 금융시장 재개장

중국 금융시장이 1주일간의 춘제 연휴를 마치고 30일 다시 문을 연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달 초 정점에서 80%가량 감소한 가운데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시장은 31일 발표될 중국의 1월 공식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통해 중국 경제 리오프닝의 영향을 가늠해 볼 것이다.

#### ⊙ ECB 금리 결정과 유로존 인플레이션

유럽중앙은행(ECB)은 2월2일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로 50b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추가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2월1일 발표될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1월 인플레이션율은 전년비 9.0%로 작년 12월의 9.2%보다 약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지금부터 7월까지 ECB가 총 10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 ⊙ 미국 대형주 실적 발표

오는 2월2일에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대형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월가 전망을 상회했지만, 현 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밝혀 기술 업종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레퍼니티브IBES 자료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4분기 이익은 전년비 2.9%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영란은행 금리 인상 마무리 수순

이번 주 영란은행(BoE)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열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영국의 12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이 10.5%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BoE 목표의 5배가 넘는 가운데 시장은 BoE가 오는 2월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로 50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 중간값을 보면, BoE는 3월 4.25%까지 금리를 올린 후에는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영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다수의 시장 관계자는 3월 금리 인상 중단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시장진단)-中 리오프닝 기대에 거세진 외인 주식 매집... 달러/원 주요 지지선 돌파 '저울질'

서울, 1월26일 (로이터) 문윤아·박예나 기자 -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국내 주식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가 달러 약세, 중국 리오프닝 국면과 맞물리고 있어 달러/원 환율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5조원을 넘게 매수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순매도 규모(7.3조원)의 7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1월26일까지 외국인의 주식 월간 순매수는 2013년 9월(7.56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국내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도 낙폭을 키우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26일 작년 4월 이후 최저치인 1,23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 ▲ 공격적인 외인 주식 매수세, 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긴축 속도 둔화와 함께 진행된 달러 약세가 원화 자산시장의 선전으로 이어지리라는 건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서정훈 삼성증권 글로벌주식팀장은 "최근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면 미국 시장 외 지역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한데 바닥 반등 모멘텀 측면에서 그동안 눈높이가 낮았던 지역이 좋으리라는 기대가 있는 듯하다"면서 "달러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어 외국인이 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전망보다 한 템포 빨리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지목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중국 경기의 정상화 기대감이 중화권 증시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과 더불어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대만 증시 역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과 함께 반등 중이고 중국 증시로도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 중"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IT사이클 저점 통과 기대감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도 외국인의 주식매수로 이어졌다고 그는 밝혔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평소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됐던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 비중이 오히려 중국의 정상화 국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현재 약 9%대로, 중국 CSI300지수 상승률인 8%를 조금 웃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최근 몇 주간 헤지펀드들의 중국 주식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 환율 하락 트리거 가능성

달러지수를 반영해 9개월 최저치로 내려선 달러/원 환율은 1,230원대 부근에서 보폭을 줄이고 있다. 외

국민 주식 자금과 결제수급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율의 상하단은 막히고 있다.

기업실적과 수출 악화를 비롯한 실물경기 침체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은 공격적인 숏 베팅을 아직 꺼리는 모습이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주식이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현재 환율 레벨이 뚫리면 1,200원 아래를 봐야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보이기 전까지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인 주식 매수세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력이 커지면서 환율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른 은행 외환딜러는 "현재 환율 움직임이 제한적인데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2021년과 2022년 상황과 반대 상황이 전개되면서 환율을 하락 쪽으로 트리거 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달러/원 주요 지지선은 20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50% 조정 레벨 부근인 1,220원대 중반선이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지지선으로는 오히려 빅피겨인 1,200원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후로 지지력을 보였던 1,180원대가 꼽히고 있다.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0.34%, 유로화 +0.11%, 엔화 -0.22%, 위안화 역내 0.00%, 달러지수 -0.08%
- 국내 주가: 코스피 +3.71%, 코스닥 +3.24%
- 미국 주가: 다우존스 +1.81%, 나스닥 +4.32%, S&P500 +2.47%
- 국내 국고채(레퍼니티브 호가): 3년 -3.0 bps, 10년 +0.3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2.1 bps
- 미국 국채: 2년 +2.4 bps, 10년 +3.4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68.9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2.00%, 금 선물 +0.04%, 레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0.20%